마음의 눈 뜰때 사물 바로 보여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⑰

눈

눈은 신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마음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며, 말을 안해도 눈으로 뜻을 전할 수 있다. 육근중 하나인 안근이 분별심을 여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때 '정견(正見)'이 열린다. 해탈에 이르는 팔정도의 실천은 정견에서 시작된다.

◇온갖 나쁜 것을 몰아내는 사천왕의 부릅뜬 눈. 통도사 사천왕 지국천왕.

◇손연철作 현대불화 '천수천안'.

◇미간에 또 하나의 눈이 그려져 있는 고려 '지장시왕도'. 1320년 作. 일본 지은원 소장.

사찰의 초입, 왕방울만한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장승. 웃옷을 벗고 하의만을 입은 채 검은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부릅뜬 사천왕. 이들은 왜 눈을 부릅뜨고 있을까. 그 위엄으로 온갖 나쁜 것을 몰아낸다고 하여 사천왕의 눈을 악안(惡眼)이라고도 한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가기 전에 세속의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탐진치 삼독심을 몰아내라는 경고성의 눈이다. 사찰을 외호하는 수문장으로서 악귀를 내쫓아 청정도량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마음속에 깃든 잡된 번뇌를 뿌리뽑기 위하여 강하고 무서운 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하고 대상과 하나로 어울리느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선하게 보고 비열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나쁘게 보게 되느니라.〈잡아함경〉"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수행자를 '눈푸른 납자'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수행자는 항상 맑고 지혜로운 눈(明眼)으로 정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근(眼根)

안근은 6근(根)중의 하나이며 눈의 감각을 생기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사대(四大)로 이뤄져 있으며 그 체질은 맑고 고요하고, 육안을 갖고 볼 수 없는 것을 승의근(勝義根)이라고 한다.

안식으로 하여금 형태·색채 등을 감각케 하는 시각기관인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의 기능을 불교에서는 오근(五根)이라고 하며 오근을 통솔하는 기능을 의근(意根)이라 하여 오근과 의근을 합해 육근(六根)이라고 한다. 육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육경(六境)이라 하며 그 인식하는 것을 육식(六識)이라고 한다.

■정견(正見)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는 지혜를 뜻한다.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나의 육신과 정신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으로 물거품처럼 무상한 것임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정견이다.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다.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 33응신중 한분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그 손에 천개의 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조각된 숫자는 40개이다. 그 하나하나의 손들이 25유(有)를 구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1천개가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많은 손과 눈을 가지고 있는가. 자비의 화신인 천수관세음보살이 각각의 손과 눈으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아픔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무릎을 낮추며/두 손바닥 모아/천수관음 앞에/비옵는 말씀 두나이다/즈믄(천) 손 즈믄 눈을 가지셨사오니/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두 눈 없는 나오니/하나를 주시옵시라/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쓰올 자비라고 를 것인고.

향가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는 희명(希明)이라는 여자가 5살에 실명한 아들로 하여금 분황사 천수관음상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광명을 찾게 한 노래로 전해오고 있다.

한편 밝아도 눈모양을 새겨넣는 경우가 있다. 네팔의 바뜨다(카스티)의 대탑과 차루마티 탑은 사면에 각각 눈과 백호가 있는 정방형의 구조로 조성돼 있다.

안근이 청정하여 있는 그대로 보면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이 열린다

천수천안 시방세계 중생 苦 살피는 눈

사천왕눈 삼독심 쫓으려 부릅뜬 모습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과 눈. 그 많은 손과 눈으로 일체중생의 고(苦)를 살피고 구제한다.

■오안(五眼)

△육안(肉眼): 인간의 소유하고 있는 육신의 눈이다. 사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뇌구족한 범부의 눈이다.

△천안(天眼):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는 초인적인 눈이다. 신통력에 의해 모든 것을 간파하는 지혜의 기능을 하며 초자연적인 시력을 말한다. 색계의 천인이 소유하고 있는 눈으로 중생의 미래, 생사를 아는 능력이 있는 신성한 눈이다.

△혜안(慧眼):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이다. 이승(二乘) 사람의 눈으로 진공무상(眞空無相), 즉 일체의 현상은 공으로 정해진 특질(相)이 없다는 것을 궤뚫어 본다.

△법안(法眼): 제법을 볼 줄 아는 눈으로 지혜의 눈이다. 그래서 선문에서 올바른 세계에 대한 견해를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것으로 모든 사상(事象)의 진상을 알고 중생을 제도한다.

△불안(佛眼): 깨달음을 얻은 자의 식견으로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는 눈이다. 즉 앞의 4가지 눈을 모두 갖춘 부처님의 눈이다.

■미간백호(眉間白虎)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상의 특징 중 하나. 미간에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좌우 눈썹 가운데 백옥같은 빛이 있는 상(相)을 가리키며 제3의 눈이라고도 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상·불화등에 생명 불어넣는 의식

점안(點眼)

개안의식(開眼儀式)이라고도 한다. 불교신앙의 대상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의식으로, 즉 눈이 열려야 생명력을 갖게 된다. 불상이나 불화, 만다라, 석탑, 불단 등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수하였을 때 반드시 공양하고 불구의 근본서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점안의식을 행한다.

〈석문의범〉 점안편에는 불상점안과 가사점안, 조탑점안, 나한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등 10여가지가 나온다. 모든 불상이나 탑이 처음엔 종이, 돌, 나무의 천연물에 불과했으나 그 자연물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예술품이 된다. 그런데 그 예술품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살아계실 때의 불보살의 위신과 영감을 불어넣게 되면 부처님의 신통력과 영험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불구는 점안의식을 봉행해야만 신앙의 대상이 된다.

△불상점안의식: 팔부신장을 청하여 도량을 옹호하게 하고 시방의 불보살께 불상, 탱화에 대한 내력을 설명한다. 도량을 청정히 한 다음 부처님부와 연화부, 금강부 등을 초청하여 점안을 거행함을 알리고 증명해 줄 것을 청한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심안 무진안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빌고 권공 예배한다. 오색실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천안통과 천이통 타심통 등이 청정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 뒤 불상의 눈을 붓으로 그리게 된다. 이러한 점안절차가 끝나면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께 증명을 받은 불상증명창불로 마친다.

◇스님들에 의해 불상 점안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전국 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우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따뜻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0343)468-7200(代)
영업부: 0343)445-6090
FAX: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체,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1-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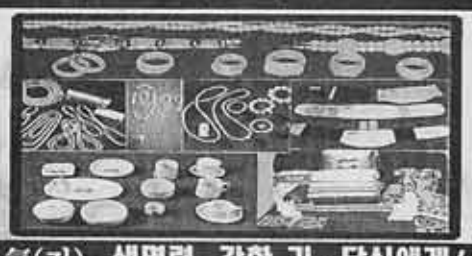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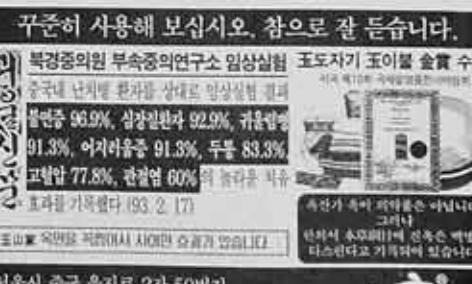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운 당신에게!

▲옥산가 최첨단이 적용 10분후 적은 손의 온열 파장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전 1.5mV 연속사용후 3.0m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찻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주문전화)